

가지 않은 길

로버트 프로스트

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
애석하게도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었다
몸이 하나이기에. 한참을 서서
한쪽 길을 따라 되도록 멀리 바라보았다
길이 덤불 속으로 휘어지는 곳까지

그러다가 다른 길을 택했다. 똑같이 아름답고
어쩌면 더 나은 듯한
풀이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원하는 길이었기에
사람 발길로 닳은 건
두 길이 정말 비슷하기는 했지만

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아무 발자국도
찍히지 않은 낙엽에 덮인 채 똑같이 놓여 있었다
아, 한쪽 길은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었다!
길이 어떻게 길로 계속 이어지는지 알기에
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도

나는 먼 훗날 어디에선가
한숨지으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
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.
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고.
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